

# “건강하세요” 😊 “결혼하거라” 😞

## ■ 듣고 싶은 덕담 지겨운 덕담

설에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덕담을 나누는 것은 가족간의 두터운 정을 확인하는 정겨운 풍경이다.

조상들은 예로부터 말 속에 신비한 힘이 들어있다고 믿었다. 좋은 말을 해주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다는 예가 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격언은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격언이다.

설날의 정취를 느끼게하는 덕담도 마찬가지다. 코흘리개 아이들은 엽밭(세뱃돈)에 신경쓰이겠지만, 어른들이 경우 가족간에 나누는 덕담 한마디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덕담을 할 때도, 듣는 상대방도 기분 좋은 말은 무엇일까.

바로 ‘건강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는 금언처럼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예나 지금이나 건강에 관한 기원과 당부다.

로또 열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던 시절에도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다. 몸 관리 잘해라’는 말은 ‘로또 대박’, ‘부자되세요’를 제치고 가장 듣고 싶은 덕담으로 꼽혔었다.

직장, 사업 때문에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가장들에게는 가족들의 위로 섞인 격려가 보약이다.

어찌가 처진 가장들에게는 ‘아빠 힘내세요’ ‘아빠를 믿어요’라는 말이 덕담으로 제격이다.

반면 좋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분이 아니게 ‘가시돌진’ 말이 될 수 있다.

혼기를 놓친 미혼 남녀들은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 두렵다.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매년 달갑지 않은 자신의 얘기가 거론되기 때문이다. 바로 ‘올해



설날 아침 회합이 섞인 덕담은 건네는 사람은 물론 듣는 이에게도 용기를 준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공부·취업해라”는 스트레스 다른 사람과 비교 절대 금물

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라’는 말이다. 덕담임에 틀림없지만 당사자는 고통스럽다. 결혼이란게 자신의 의지, 노력과 비례하지 않는 인생사이기 때문에 알기

물론 미혼 남성에게도 이 같은 덕담은 부담스럽다. 취업 재수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해는 좋은 직장 잡아라’, ‘취업 준비는 잘되느냐’는 말을 듣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니다. 이같은 ‘걱정형’ 당부는 설날 가장 듣기 싫은 덕담 여론조사에서 항상 수위를 다투

는 말로 꼽힌다. 덕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본인인 공부와 관련해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열심히 공부해야지’, ‘어느 대학에 갈 건데’ 등 덕담은 결코 위로나 격려의 말로 들리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나이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생까지 가장 듣기 거북한 덕담은 ‘누집 자식은 어떤 데 너는?’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이다.

덕담의 예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덕담은 덕을 주는 것이므로 아랫사람이 어른께 덕을 드릴 수 없다.

아랫사람은 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공손히 덕담을 기다리면 된다. 어른의 덕담이 있을 후 아랫사람은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잘 보살펴주세요’라는 ‘인사’를 드리면 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 위로 포개야

### ■ 성균관서 권하는 세배 예절

세배에도 ‘정도(正道)’가 있다. 하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도 예절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성균관에서 권하는 세배하는 순서와 방법을 알아보자.

세배는 차례를 지낸 뒤에 한다. 세배를 받는 어른 중 남자는 동쪽에, 여자는 서쪽에 앉는다. 이 법칙은 절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양=동쪽=남성/음=서쪽=여성’이라는 음양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자리를 잡았다면 어른의 앞에서 부부 간에 절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부모에게 세배를 올리고 형제자매 간에 평절로 인사한다. 아들 딸에게 세배를 받을 때는 부모 곁에 앉아있으면 된다.

이젠 제대로 절하는 법, 남성의 경우 왼손이 위로 올라가도록 손을 포개 뒤 양 팔꿈치와 손이 배 부근에서 수평이 되게 한다. 허리를 굽혀 손으로 땅을 짚고 왼발을 구부린 뒤 오른발을 구부린다. 오른 발바닥이 왼 발바닥 위에 올라가도록 한다. 엉덩이를 발에 붙이고 손을 구부려 양 팔꿈치가 땅에 닿은 상태에서 얼굴이 손에 닿을 듯 말 듯 할 정도로 숙인다.



세배는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전통예법이자 명절의 예절을 익히는 중요한 사례가 되리라. /연영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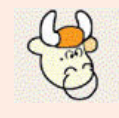
여성들은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개 손과 팔꿈치가 수평이 되도록 어깨 높이에 맞추고 고개를 숙인다. 왼발과 오른발을 차례로 구부려 앉으면서 허리를 반쯤

숙이고 절한다. 덕담을 들 때는 남자는 무릎 꿇은 자세에서 모은 두 손을 허벅지 중앙에, 여자는 오른쪽 허벅지 위에 얹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띠별 丁亥年 토정비결 지천명(역술인) ☎011-632-6121



넓은 물에서 물고기가 짝을 만나 노니는 모습으로 남녀 간에 좋은 인연이 생긴다. 36년생=동년배의 인연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8년생=손윗사람의 인연은 조심하라. 60년생=그물에 걸리는 것만 조심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 72년생=지나친 이성과의 인연은 오히려 해가 된다. 84년생=새로운 일이나 활동처에 용기 있게 분발하면 큰 발전이 있다.



소가 황금돼지를 만나 낯설지만 새로운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 성공의 길에 들어선다. 37년생=동기간의 우애가 있다. 49년생=상사의 도움이 보인다. 61년생=순풍에 항해하고 귀인을 얻는 기회가 있다. 73년생=돈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85년생=때로는 풍림을 만나는 수도 있으니 진인사대천명하면 의외의 재물을 얻는다.



주변과 화합이 잘되는 해가 되니 정확한 계획을 세워 도전하면 하늘도 돕는다. 38년생=손윗사람의 협조가 따른다. 50년생=알게 모르게 돈이 되는 형상이고 잃어도 투자로 변화한다. 62년생=여복이 있다. 74년생=새로운 삶을 살게되며 자녀가 생기거나, 신용도를 높여주는 좋은 협조자를 얻는다.



정신없는 한 해이며 의인과 사기꾼이 다가오니 지극정성으로 생활하면 결과는 좋다. 39년생=손윗사람의 정이 생겨난다. 51년생=귀인의 도움이 있고 의외로 재물을 얻으니 과감하게 진행하라. 직업이 새롭고 영전 승진하는 격이니 재수가 자래한다. 63년생=친구간의 우정이 어지러워 진다. 75년생=활동하면 한만큼 성과가 오르니 사기·도난 등을 주의해야 한다.



황룡이 대해수를 만나 승천준비가 완료된 형상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 대업을 이루게 되니 용감하게 진군하라. 40년생=상사의 시기가 있다. 52년생=재물과 이익이 사방에 있고, 도처에서 재물을 얻는다. 과감하게 전진하되 주변의 미운사람을 용서하라 64년생=아랫사람의 미움이 오히려 애정으로 변한다. 76년생=인내해야 큰득이 있으니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다.



생명체가 주변의 바람으로 흔들리고 시비수가 따른다고는 하나 미워할 수 없는 관계가 꽤 행운을 만날 수도 있다. 41년생=자식이 고충을 주지만 큰일은 아니다. 53년생=여자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65년생=매사에 말씨마다 발걸음마다 심신의 행동까지도 신중해야 한다. 77년생=전쟁과 혼란 중에도 두려워 취할 수 있으니 일전은 감수하고 자중해야 한다.



말띠가 황금돼지를 만나 암합(暗合)을 하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도색을 하고 있는 형상으로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인연이 맺어지고 이루어지는 운세다. 42년생=겉과 속이 다정하다. 54년생=의외의 협조자와 식구가 늘고 자신을 괴롭히던 적장이 군졸을 데리고 함께 항복한다. 66년생=겉은 불화함이나 내부적으로 정이 솟는다. 78년생=이성간이든 주변 인물이든 불륜한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여명 속에 길을 가는 형상으로 의혹이 발생하고 주변이 어수선하나 가둠을 잘 잡으면 고구마가 뿌리째 달려나온다. 43년생=여성과의 인연은 피해야 한다. 55년생=달콤한 주변 말을 조심하고 서두르는 자는 경계하라. 67년생=동료간의 우애를 지켜야 한다. 79년생=사소한 것으로도 의가 깨어지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한다.



즐거움과 고역이 쌍수로 따를 수도 있으니 수양과 신중으로 기도를 잃지 마라. 44년생=새로운 계기를 잡아 희망과 재산의 증식을 기할 수 있다. 56년생=동료간의 돈거래는 약이 따른다. 68년생=상관과의 다름이 보인다. 80년생=고역 후에 평안이 오는 고진감래(苦盡甘來)형이다.



돼지의 저돌성과 인내의 양면성으로 잘 융화가 되는 한 해가 되며 주변 어른들의 건강을 살펴야 한다. 45년생=믿는 도끼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57년생=직장동료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69년생=상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81년생=순류에 항해하는 형으로 직장과 직업에서 새롭게 승진·변영을 이룬다.



개띠가 황금돼지를 만나니 친한 주변과 좋은 협조가 있으면서도 반목 질투가 교차될 수도 있다. 34년생=부하의 충성이 예상된다. 46년생=친구, 동료의 접근을 주의해야 한다. 58년생=주변의 상사를 견제하라. 70년생=가까운 사람이 최고의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역으로 가해자도 될 수도 있다. 82년생=재물이 신성하고 직업의 안정성이 생겨나고 자식으로 기쁨을 얻고 형제 및 주변의 도움이 크다.



돼지가 황금돼지를 만나는 형상으로 대고(大害) 없이 무난하나 큰물과 큰물이 가까이 하니 파도소리가 날 수도 있다. 47년생=친구들의 질투와 애정이 교차된다. 59년생=화평점정으로 핵심만 건드려도 행운이 생기는 운세다. 71년생=어른의 애정이 크리라. 83년생=하늘에서 비가 색이 변해 내리니 많은 준비를 하면 걱정 없이 비껴가나 조그만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

# Cell Banking

생명은행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해있다가  
암·백혈병·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의 시력입니다.

유지비용 20만원

한국의생명보험협회 광주지점 ☎070-4273-3475

www.kcellbanking.com

01. 세포은행이란 무엇인가?

02. 세포은행의 장점

03. 세포은행의 종류

04. 세포은행의 보관 방법

05. 세포은행의 사용 방법

06. 세포은행의 주의 사항

## SELF WINE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와인 만들수 있는 곳

01. 셀프와인이란 무엇인가?

02. 셀프와인의 장점

03. 셀프와인의 종류

04. 셀프와인의 보관 방법

05. 셀프와인의 사용 방법

06. 셀프와인의 주의 사항

07. 셀프와인 만들기

08. 셀프와인 맛보기

09. 셀프와인 선물하기

10. 셀프와인 예약하기

**SELF WINE 광주점** ☎070-4273-3475